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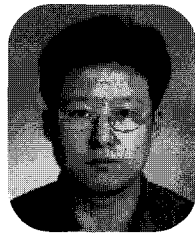


최근 농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최근의 양돈업계는 때 아닌 호황으로 얼굴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돼지를 잘 키우고 있는 농장의 경우이겠지만, 판매할 돼지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기

입니다. 작년에 농장의 운영상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돈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운영의 묘일 것입니다. 돈가가 좋은 시기에는 정상적인 사료급여, 약품의 사용, 기타 돼지를 위한 시설 보수 등이 잘 이루어지지만, 돈가가 낮을 때에는 사료조차도 정상적으로 급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사업은 눈앞에 벌어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는 6개월, 많게는 1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가가 낮은 시기에는 돈가가 높을 때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돈가가 높을 때에는 돈가가 낮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돈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이 권 회 의사
(주)엘비씨

최근의 호황으로 돈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로는 7~8월까지도 3,000원대를 육박하는 시세를 보일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장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지속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

니다. 작년 가을에 미처 지금을 준비하지 못한 농가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4월 총선이 지나면 사료비 등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원자재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옥수수의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다른 원자재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경영상의 위험요소(Risk)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금융업계나 첨단산업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양돈 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에만 얽매이지 말고 앞을 내다 보는 경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1.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일컬어 환절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의 특징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며,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아주 안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호흡기계가 민감한 돼지에게는 더욱 나쁜 영향을 미쳐서 호흡기 질병이 만연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돼지는 주로 돈사 안에서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안의 경우에는 이런 환절기, 더 나아가 겨울과 봄, 여름, 가을에 기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민감하게 고려하는 것이 단열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택이 단열이 잘 되지만, 예전에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돼지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사를 건축할 때 단열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돼지들이 호흡기 질병에 의해 고통 받고, 농장 사장님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

어 있다면 내부의 온도차이는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환절기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환절기 클리닝이라는 엉터리 용어도 필요 없게 되겠지요.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 돈사를 면밀히 점검하여 틈새를 막아주고, 보온덮개 등의 단열재를 활용하여 단열을 보강해

지금 이 환절기로 돼지에게는 아주 안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호흡기계가 민감한 돼지에게는 더욱 나쁜 영향을 미쳐서 호흡기 질병이 만연되는 시기입니다. 돈사를 면밀히 점검하여 틈새를 막아주고, 보온덮개 등의 단열재를 활용하여 단열을 보강해 주면 돈사 내부의 온도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생충을 억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옴은 대략 10~25일의 간격으로 알에서 성충까지 성장하는 생활환을 갖습니다. 돈사내에 존재하는 옴의 유충과 알까지 박멸하는 것이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주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2주 간격으로 2회 주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료첨가의 경우에는 7일 투약, 7일 휴약, 7일 투약의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면 돈사 내부의 온도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온덮개 한 겹은 2.5센티미터의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 겹의 보온덮개는 5센티미터의 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노출된 벽면을 보온덮개로 덮거나 감싸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여름에도 뜨거운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노출된 벽은 겨울에 냉기를 빨리 전달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온기를

빠르게 주변의 돼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돈방은 똥자리도 잘 안 잡히고, 질병의 발생도 더 많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온덮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열을 보강하여 환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후보돈의 도입 후 2개월이 지나면 교배를 하게 되고, 교배 후 약 4개월이 지나면 분만을 하게 되며, 이후 태어난 자돈들은 약 6개월이 지나야 판매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약 1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입하는 후보돈은 돈가가 좋은 시기에 판매할 돼지이므로 후보돈의 도입에 한층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2. 기생충의 박멸

또 다시 기생충을 억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작업이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 하는 작업인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에 음이 있으면, 설사 외부로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생산성의 10%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은 농장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멸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박멸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음은 대략 10~25일의 간격으로 알에서 성충까지 성장하는 생활환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박멸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 합니다.

특히 알은 돼지에서 떨어져도 돈사 내에서도 5일 동안 살아있으면서 재감염 됩니다. 그러므로 돈사내에 존재하는 음의 유충과 알까지 박멸하는 것이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버멕틴 제제를 사용하여 구충을 하는 농장이 많은데, 주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2주 간격으로 2회 주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료첨가의 경우에는 7일 투약, 7일 휴약, 7일 투약의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사료 회사에 첨가되어 있는 0.2ppm으로 7일의 투약은 비육돈군에서 일시적인 억제 는 가능하지만 번식돈군과 큰 돼지에서 의 억제, 박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박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사의 음 소독도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델포스(쉐링푸라우코리아)를 이용하여 돈사 내부를 스프레이 해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도입돈 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톱밥 돈사의 경우에는 톱밥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료첨가의 경우, 환돈은 추가로 주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웅돈은 3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주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 있는 돼지는 주사로 치료를 실시한 후 박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은 박멸이 완료되면 외부 도입돈 관리만 철저히 잘 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면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년에 1회, 길게는 3년에 1회 정도만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수의사에게 반드시 박멸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신 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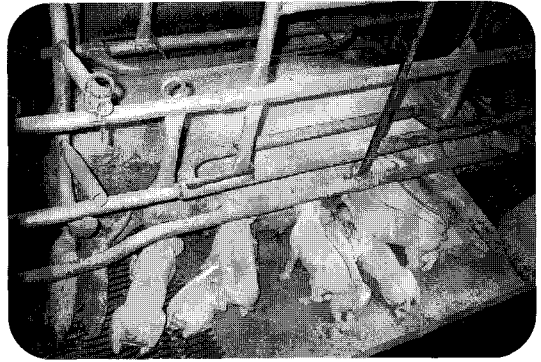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기생충 뿐만 아니라 내부기생충도 함께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회충의 경우에는 간과 폐까지 물리적인 손상을 입혀서 성장에 많은 장애를 주기 때문에 생산성의 막대한 저하를 유발합니다. 반드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3. 내년 사업의 준비

지금은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후보돈의 도입 후 2개월이 지나면 교배를 하게 되고, 교배 후 약 4개월이 지나면 분만을 하게 되며, 이후 태어난 자돈들은 약 6개월이 지나야 판매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약 1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입하는 후보돈은 내년 이맘 때 판매할 돼지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돈가가 좋은 시기에 판매할 돼지이므로 후보돈의 도입에 한층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돈군으로 구성하여 돈가가 좋은 시기에 충분히 많은 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2회 이상 나쁜 모돈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좋은 후보돈으로 대체하시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전산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축적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산관리를 시작하시어 농장을 운영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양돈은 당장의 성과를 보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의 미래를 보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므로 2005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초의 생산계획은 결정되어 있을



● 지금이라도 전산관리를 시작하시어 농장을 운영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것입니다. 2005년의 생산계획과 이에 따르는 재무계획까지 작성하시고, 계획대로 운영하시면 계획서 상에 기대했던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돈가 예측도 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작성을 해보면 농장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갖고 농장을 운영하는 것과 계획 없이 농장을 운영하는 것에는 경영성과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경영의 3요소인 계획(Plan), 실행(Do), 검토(점검, See)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이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을 하고, 이에 따라 실행을 하고, 실행한 부분은 점검하여 다시 계획을 점검보완하고, 다시 실행하고, 검토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장 사장님 여러분은 바로 중소기업의 사장님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로서 반드시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돈**